

광주 중고생 12명, 인도네시아 메단서 ‘청소년 교류’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찾았어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광주와 한국 문화를 알리며 글로벌 공감대를 넓힌다.

광주시는 지역 중·고등학생 12명이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인도네시아 메단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또래 청소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체험 중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캠프에는 광주시 12명, 메단시 12명 등 총 24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조별 활동과 공동체 수행,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속 교류를 이어간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역량은 물론 세계시민으로서의 감수성과 책임 의식 배워

캠프에 참여한 김수현 학생(조대여고)은 “어릴 때부터 외교관을 꿈꾸며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이번 국제교류 캠프가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고, 광주와 한국을 알리는데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현호 시 국제교류담당관은 “이번 국제교류캠프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세계를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울 수 있도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12명은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간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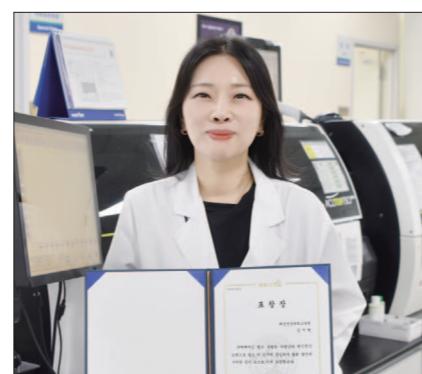
김미현 화순전남대병원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협회장상 수상…학술·교육 체계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김미현 임상병리사(사진)가 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 협회장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협회 광주시회 학술이사를 맡으며 학술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원 역량 강화와 협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김 임상병리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하며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

각종 학술 및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도 공헌했다.



김미현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상이다”며 “앞으로도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민방위 강사 25명 위촉

광주시는 최근 2026년 민방위 교육강사 25명을 선발, 3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민방위 교육강사들은 다음달부터 자차구별 민방위 교육 일정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화생방 대응, 응급처치, 화재 대응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해 민방위대원의 재난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동휘 조선대병원 교수, 인공관절 치환술 5000건 달성

퇴행성관절염 치료 최종 단계…슬관절 분야 도약 이끌어



괴를 축적했다.
이 같은 노력을
현재 연간 약 800
건의 무릎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으
로 성장하게 됐다.

김동휘 교수는
“지역 병원에서도 세계 수준의 의료를 구
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명맥이 끊
긴 분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진정
한 보람”이라며 “미국 소도시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처럼 환경
에 굽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세계적
인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선대학교병원은 김동휘 정형외과 교수(사진)가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수술 5000건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관절이 심하게 손상돼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시행되는 수술이다. 무릎을

절개한 뒤 손상된 관절연골과 일부 뼈를 제거하고 고강도 합금으로 제작된 인공관

절로 대체하는 치료법으로 퇴행성관절염

치료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고난도 수

술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공관절 치환술 5000건 달성을

개인의 성과를 넘어 병원 슬관절 진료 체

계 전반의 재정립을 이끌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교수는 2005년 조선대병원 부임 당시, 슬관절 전공 교수의 장기 부재로 인해

연간 인공 슬관절 수술이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진료 기반이 부족해 상황에서 진

료를 시작했다.

이에 김 교수는 외래 문진 체계를 표준화하고, 수술 환경 개선을 위한 드레이프(drape) 개선, 수술 시간 단축, 수술 전 영상 및 병력 리뷰 시스템 도입 등 진료

전반의 체계화를 추진했다.

또한, 인공관절 감염, 주위 골절, 재발

성 혈관질증 등 환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 성

인사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원장 전 직·전보 △화운

유치원 이영선 △빛고을유치원 김혜정 △예향유치원 박경옥 △신옹유치원 백선희 △효천다솜유치원 황은숙

◇초등 교장 승진 △신월초 강희숙 △광주 운암초 김선영 △광주서초 김영미 △용두초 김경우 △기획초 설향순 △성현초 소영주 △봉산초 △운수초 양혜란 △삼각초 유영란 △마지초 이수경 △태봉초 조선미 △경양초 최경아 △광주서초 최대우

◇초등 교장 전직·증임·전보 △금당초

△교장 전직·증임·전보 △금당초 오희숙 △연주초 박성일 △송정초 오주봉

△계수초 명진 △진만초 유정현 △하백초

이병선 △광주화정초 임순석 △목련초 조명숙 △연제초 주은순 △비아초 최영선 △문우초 김복희 △광주산수초 김문영 △참미르초 김복현 △조봉초 윤상현 △양지초

윤선우 △서일초 이점동 △첨단초 전현숙

◇중등 교장 승진 △장덕초 윤영체 △신

광중석 △지산중 기정강 △광산중 김수희 △운남중 황용중 △선운중 정남숙

◇중등 교장 전직·증임·전보 △대자중

△광주화정초 이준재 △광주화정초 안진

△월계중 김인숙 △봉산중 김용환 △호중

△승수 중등 교장 전직·증임·전보 △대

△광주화정초 박경자 △광주화정초 정경

△광주화정초 김경숙 △광주화정초 정경